

◀기쁜 우리 날들▶ 어느 제직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직회를 열었다. 제직회에 처음 참석한 신참 집사님이 발언권을 요청했다.

신참집사 :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서 우리도 먹고 이웃도 같이 나눠먹으면 좋겠습니다."

장로(1):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먹고 전도도 할겸 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로(2): "지금 어떤 세상인데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떡을 만들어도 먹지 않으니 만들지 맙시다."

장로(3): "그래도 그렇지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명절인데 떡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경로당도 같다주면 좋겠습니다."

장로(4): "다 좋으신 말씀인데 뭐 그것 가지고 다투면서까지 떡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지 맙시다."

장로(5): "요즘 가뜰이나 교회가 인색하다고들 하는데 떡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 최. 안. 전.... 집사 : "이러니 저러니 만들자. 만들지 말자"

이렇게 떡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말 것인가 서로 자기주장을 내 세우다가 결국은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려 다섯 시간이 지나갔다.

그 때,

목사님 : "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

장로(1): "백설기떡으로 합시다."

장로(2): "요즘 세상에 백설기떡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절미로 합시다"

장로(3): "교회에서 무슨 인절미입니까? 팔시루떡으로 합시다."

장로(4): "송편으로 합시다."

장로(5): "가장 쉬운 절편으로 합시다."

김. 이. 안. 박. 정. — 안수집사 : 제각기 한마디씩 했습니다.

목사님 : "그러면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종류는 백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직회를 마칩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장로 : "05년 0월 0일 12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적인 안건을 심의한 후 13시에 신참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자는 안건을 내신 후 18시에 떡을 만들기로 결정하고(다섯시간 소요), 18시에 김 장로님께서 무슨 떡을 만들 것인가의 의견에 여러 제직의견을 수렴하여 백설기떡을 만들기로 목사님께서 선포하고(두시간 소요) 제직회를 마치니 20시 정각이었다(일곱시간 소요). 이에 이어서 저녁 예배에 들어가다. "



◀그뻘 그랬지 ▶ 가수 이금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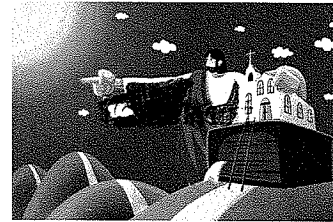
"키다리 미스타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은 마음씨 그만이에요" 지금까지도 가사가 기억될정도인걸 보면 60년대에 대단히 유명했던 노래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현미.한명숙과 더불어 허스키한 목소리로 시대를 풍미했던 그가 이젠 병상에서 힘겹게 투병중이라는 소식에 연약한 인생을 생각합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2월 11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교회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
군대 없는 군인,
투표하지 않으려는 시민,
가족 없는 아이,
악대 없이 북 치는 교수,
팀 없는 운동선수,
벌집 없는 꿀벌,

배 없는 선원,

자신이 발견한 것을 동료와 나누지 않는 과학자

소속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지 않고 보낸 7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성실하게 참석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성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말씀따라 행하기▶

남을 위한 기도는 큰 유익이 있다
남을 위해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대가로
돌아오는 수고비가 있기 때문

◀인품따라 행하기▶

형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와
형담의 대상자와
듣는 자.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Hymn	9 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시편8)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15장	다 같이
기도 Pray		권용일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사기 3:12-3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의 사랑 "사사" (2) "약점으로 쓰임받은 애춧"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64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생명의 소생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움 받을 기도합니다"
-성전건축헌금 어느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425

총액:\$299,015

◆2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28	김순자		본당:권 사
4	고성일		현관(1):박일영 최재학
11	권용일	장 로	현관(2):장현중 정덕수
18	김영길	권 사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5	노은숙	안수집사	윤주야 장유진

◆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11	
18	구역모임주일 설날 구역식사친교
25	이삭줍기주일

『교회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저녁 7시

- 교우소식 :<등록> *김경미.이태유(4선교) 인혁.유진
☎629-6562. 15 Howell Crs. Mt Roskill
*정인옥(3선교) ☎021-053-0798. 18 McDonald Crs. Mt Wellington
- 선교회 총회:예배 후 갖습니다. 임시총회 의장=최연장자
*3선교회: 30대-44세(64년생 부터)=잔디밭
*4선교회:45세-49세(63년생<-> 59년생)=Dressing Room
*5선교회:50세 이상(58년생 이상)=Main Hall
- 구역편성(편성표 참조): 첫 구역예배. 3월 9일(금) 저녁7:30
*구역장 모임 <일시> 매달 마지막 수요예배 후
- 선교회 수요헌신예배 <일시> 매달 첫 수요일 *3월 7일(수):5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위한 선교회 준비>
*헌신예배 강사:(1)선교회원중 간증자 or (2)외부 강사(자체적으로 모심)
*특송:선교회원 전원 *헌신예배 후 교제의 Tea Time 준비
*외부강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교단 목회자.선교사.
- 설날 맞이 구역별 식사친교 <일시> 18일(다음주일) 예배 후
*구역식구 상견례를 겸한 명절파티:구역인도자 or 인도자 부인 모임(예배후)
- 예배 후 청소,정리정돈: 안수집사
- 갈보리동교회 창립 <문의> 백제성 집사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우리 교우들의 친목을 갖겠습니다
*『제1회 Activity』 <일시> 24일(토) <장소> Winderholm Tramping(왕복 1:30분)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거만스러우리만치 장관의 경치를 연출 중입니다.

◀착한 시인들▶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들은 정맥이
바르르 땀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들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더워 먹은 풀냄새가 훅 하고 열
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기세 등등
한 여름입니다.
그래서인지 토요일 오후에 뿌려
지는 빗소리가 여름에 참 잘 어울
리는 리듬입니다.
제 시기를 놓치고 오는 계절의
정조들은 떠나보내며 단념했던
희망을 다시 가져다 줍니다.
3월의 눈, 가을 더위, 봄의 냉한
추위.....너무 쉽게 버리고 잊고
사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아우
성들입니다.